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옴으로써 사람의 몸이 생겨남

목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 위에 구세주가 와서 마귀를 전멸하게 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그들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광명한 빛을 받으면 피로한 것이 없어집니다. 광명한 빛을 받으면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승리제단 식구들이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육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어 있고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없고 나이 어린 사람이 없어

그때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먹는 대로 바로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가 앞에 있고 배가 먹고 싶으면 배가 앞에 있고 옛이 먹고 싶으면 옛이 있는 겁니다.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이 있고, 마음먹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승리제단의 역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없고 그때에는 나이 어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똑같이 17세에 아주 젊은 상태로. 그렇지만 그 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구세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마귀가 소멸되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없어지면 사람의 몸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몸은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에게 들어와서 육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소멸되면 사람의 몸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날아다니게 되어 있고 마음먹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님의 신으로 화하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그대로 달나라 가고 싶으면 마음먹는 순간 달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일초 일초 모여서 60초면 1분이 되죠? 1분 1분 모여서 60분이며 한 시간이죠? 이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달나라 별나라 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초도 안 걸려서 달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시간이 없는 세상, 바로 그렇게 저항을 받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을 날으면 바로 바람의 저항을 받죠? 바람의 저항을 받는데, 그 세상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마음먹은 상태로 그대로 그 순간에 가버립니다. 순간에 가버리고 순간에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빠른 기차나 비행기를 타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없는 세상을 사나갈 수 없이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쾌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로 할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제단이 보통 복 있는 사람이 못 오는 겁니다. 여기는 복이 많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선한 일을 적당한 사람의 자식만 이 승리제단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부터 인간으로 변해

승리제단 나와 앉아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저절로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리제단에 나오면 선악과가 되는 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이 이게 마귀의 영이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영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구세주가 한국 땅에 나타난다는 말이 성경에도 써 있고 불경에도 써 있고



구세주 조희성님

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라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라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라리.”

이 지구 땅 위에 동방나라는 한국나라와 일본나라를 가리킨 겁니다. 그런데 왜 ‘섬들이 잠잠하라’ 했느냐 하면 일본나라는 섬나라인 고로 섬나라에서는 구세주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 왕들이 다 와서 동방의 의인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은, 그 동방의 의인이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부터 인간으로 화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으로부터 완성자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소라’라는 땅에서 살던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소라에 가보면 ‘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땅? 왜? 우리 단지와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이 ‘단’이 되어버리고만 겁니다. 지금도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3천년 밖

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몽고에서 살다가 바로 압록강 건너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고 천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살 때에 알타이 말을 썼던 겁니다. 알타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애굽나라에서 노예생활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다가는 우리 애굽나라 백성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이슬람나라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구세주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슬람신을 내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애굽나라에서 노예생활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다가는 우리 애굽나라 백성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이슬람신을 내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동양사에서는 우리나라 민족은 알타이어족이라고 동양사제가 써어 있는 겁니다. 동양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이 알타이어족이라는 걸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알타이 말이 발전되어 가지고 한국어가 된 겁니다. 이렇게 깊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사실대로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한심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관습을 보면 동짓날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죽을 쑤어서 옛날에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도 양의 피를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소라’라는 땅에서 살던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동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소라에 가보면 ‘단’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땅? 왜? 우리 단지와 자손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이 ‘단’이 되어버리고만 겁니다. 지금도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상 3천년 밖

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몽고에서 살다가 바로 압록강 건너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설립하고 천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살 때에 알타이 말을 썼던 겁니다. 알타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애굽나라에서 노예생활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나라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나라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리다가는 우리 애굽나라 백성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이슬람나라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구세주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이슬람신을 내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2일 본부제단 예배 시간에 방영된 말씀으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victor.or.kr/sub401/240712-030210/>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 아이성을 점령하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서 부정하게 된 사납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모두 불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라.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을,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아이성을 쳐부숴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를 아이성의 뒤쪽에 웅사 3만 명을 매복시켜 두고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장정들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적군이 그의 성으로부터 멀리 쫓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성 쪽으로 내뻗었습니다.



단창을 높이 든 여호수아

여호수아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문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성 뒤쪽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고, 그곳에서 급히

《8장 여호수아》 2절: 여호수아와 히위 사람



▲ 이스라엘 고고학자 제르탈(Adam Zertal)이 1980년에서 1984년까지 세겔 지역의 고고학 탐사 중에 예발산 중턱에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함.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즉시 그 성을 불질러버렸습니다. 연기가 아이성에서 치솟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거짓 후퇴를 그치고 돌아서서 추격하던 적군에게 달려들어 무찔렀습니다. 아이성 안에 있던 가축과 노략한 전리품은 이스라엘이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사로잡은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때에 그의 시체를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부터 기를 쌓았습니다.

(3) 예발 산에서 돌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북쪽 40킬로미터에 있는 예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위족이 거하는 아이에서 가나안족이 거하는 실로를 지나 브리스족이 거하는 세겔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들이 맨얼굴 아이에서 세겔 옆에 발산까지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어 그에게 주

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겔의 남쪽 그리심산을 지나 세겔의 북쪽에 있는 예발산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들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삼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압광야에서 당부한 모세의 말대로 뚝소 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정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쟁과 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예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

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발산 남쪽 기슭에 큰 돌을 세우고 하얗게 석회를 발랐습니다. 그 돌 위에는 모세가 써 둔 율법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예발산 앞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등 여섯 지파가 서게 하였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그 나머지 여섯 지파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단지 남서쪽 약 5킬로미터쯤 거리에 있는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도록 하였습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